

##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 연구

정 희 정\*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유아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질적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 29명을 세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한 후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8주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술적 관찰, 심층 면담, 그리고 과제 형태의 서술적 설문조사를 통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와 코딩작업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개인 및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의 개인 및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부모교육의 내용의 변화이다. 앞으로의 기독교 부모교육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함의를 포함하면서 자녀양육이 실제 삶에서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기독교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느끼는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녀양육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부모교육의 형식의 변화이다. 부모들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소집단 형식의 부모교육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는데, 기독교 부모교육은 자녀의 신앙교육이나 자녀의 발달이해와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간 그리고 부모와 교육기관 및 교회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부모 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갈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기독교 부모교육, 자녀양육,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관계, 부모교육과 상담

---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2011년 11월 3일 접수, 12월 13일 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 I. 서론

일반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된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이러한 반복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고 진화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이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사회의 발전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가진 유산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순환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의 첫 번째 교사이자 스승으로서 누구보다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은 1960년대에 아동연구와 인지발달이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이래 부모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함께 수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과 자녀양육에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부모들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이 지적되었다(노진형, 2005: 1; 백영숙, 2007: 2; 정안나, 2007: 1). 이는 한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부모교육에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은영, 2009; 김경남, 2009; 김미숙, 2009; 김혜진, 2005; 김춘자, 2009; 노애민, 2008; 방한별, 2007; 배수진, 2009; 백영숙, 2007; 서민교, 2007; 임미애, 2007; 윤미향, 2006; 이화영, 2010; 차삼숙, 2005; 최승애, 2006; 최윤경, 2011; 최혜리, 2011; 허순금, 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 사건이나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불안, 정서적 긴장, 피로움 및 피로감 등이 일상적인 상태로 고착화되는 것이다(김정은, 2004: 17). 크니크와 그린버그(Crnic & Greenberg, 1990: 1629)도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하루의 일과로 가정생활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부모-자녀 관계의 일들이 부모에게 성가심과 어려움, 신경질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다. 이렇듯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모로서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

는 사소한 스트레스이나, 이러한 일상적인 사소한 스트레스가 매일 반복되고 누적되면 부모에게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자녀의 발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부당한 양육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Abidin, 1990).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짐은 물론 합리적 지도를 덜하고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를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5; 김현희, 2008; 안지영, 2000).

교회 및 기독교 기관에서도 기독교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독교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첫째,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 된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하나의 모델로 설정하여 고찰함으로써 현대 기독교 가정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 둘째, 기독교 교육의 주체로서 가정의 본질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교육 주체의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도록 가정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 셋째,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부모역할을 제시하는 연구 넷째,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의 기독교 가정에 적용한 연구 다섯째, 가정교육을 강조한 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는 연구 여섯째, 실제적인 교회의 부모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정희정, 2009: 8-9).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영락교회의 유니케 부모교육 프로그램, 독수리 기독교학교의 아름다운 부모학교 프로그램,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성경적 부모교실 프로그램,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의 부모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두란노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일반 부모교육과 달리 기독교 부모교육에서는 실제 부모들의 삶과 연관된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기독교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회에서의 부모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고, 교회를 중심으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그 이론적 토대가 체계적이지 않고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정희정, 2009: 2). 학문적 토대를 두고 개발된 기독교 부모교육을 실시해 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채경선(2006), 정희정(2009), 그리고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숙미(2009)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

다. 한편, 외국에서의 기독교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경적 양육모델에 대한 연구(Balswick & Balswick, 1989; Hsu, 2008), 아동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연구(Thomson, 2009), 제자 훈련 방식의 자녀양육 프로그램 개발(Godissart, 2008), 그리고 기독교교육에서의 부모 역할 증진 훈련에 대한 연구(Choi, 2007) 등이 있었다. 이처럼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부모들의 실제 삶을 다루고 구체적인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자녀의 신앙교육이나 가정에서의 부모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기독교인 부모들의 실제적인 자녀양육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은 부모들에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질적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삶에서 기독교인 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와 이해를 획득함으로써 기독교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실제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면담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로서 질적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이다.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06).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기독교 정신을 이념으로 설립된 R유치원, D유치원, O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유아의 어머니 29명이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각각의 유치원에서 8주간 실시되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여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15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에 따라(Heinicke, Carlin, & Given, 1984; Kagan, Neville, & Rustici, 1993; Kelly, 1981; 민숙영, 2006; 백미영, 1995) 부모교육 집단 크기를 교육자와 부모 간, 그리고 부모와 부모 간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8-10명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즉 R유치원과 D유치원은 10명, 그리고 O유치원은 9명으로 각각 부모교육 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의 배경

대상	변인	내용	빈도(%)
어 머 니	연령	만26-30세	2(6.9)
		만31-35세	9(31.0)
		만36-40세	15(51.7)
		만41세 이상	3(10.3)
	직업	가정주부	25(86.2)
		사무직	0(0)
		전문직	3(10.3)
		기타	1(3.4)
	신앙경력	5년 이하	6(20.7)
		6-10년	3(10.3)
		11-15년	2(6.9)
		16년 이상	11(37.9)
모태신앙		7(24.1)	
배우자신앙	비기독교인	8(27.6)	
	기독교인	21(72.4)	
자 녀	연령	만3세	4(13.8)
		만4세	13(44.8)
		만5세	12(41.4)
	성별	남아	12(41.4)
		여아	17(58.6)

## 2. 면담절차

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실시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실시되었다.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세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서울에 위치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세 곳에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8주간 실시되었다.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8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회기마다 면담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이 사용되었는데, 먼저 집단면담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매 회기 도입과정에서 토의로 이루어지는 집단 면담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자녀양육에서의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전개과정에서 실시된 개인면담은 1: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 강의를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상담사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매회기 주제 및 연구자가 면담시 사용한 질문의 내용을 제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매 회기 주제 및 면담시 사용된 질문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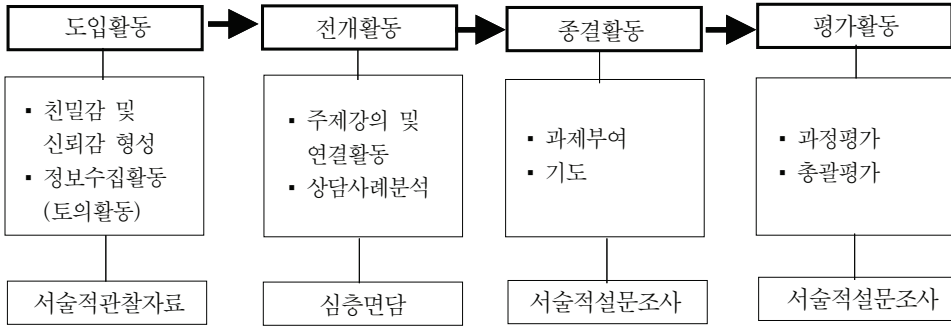
회기	부모교육주제	질문의 내용
1회	프로그램 진행 소개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와 기대하는 목적, 일반적인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과 이유
2회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반응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영역 분류, 자녀양육 스트레스 영역 선택 및 이유,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구체적인 말과 행동
3회	감정분류 및 확인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선택 및 이유, 그 이유에 대한 확장질문,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녀의 감정 추론
4회	마음의 욕구 및 목표 확인	성경적인/비성경적인 자녀양육의 목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구 선택 및 이유
5회	자녀양육에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에 대한 생각, 부모의 욕구에 대한 재고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회기	부모교육주제	질문의 내용
6회	마음의 변화를 통한 자녀양육의 새로운 목표	자녀양육의 새로운 목표, 필요한 성령의 열매
7회	성경적인 자녀양육	선택한 성령의 열매와 관련한 새로운 자녀양육행동의 목록 작성, 실천여부
8회	하나님과 함께 자녀양육하기	자녀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고려,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술적 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과제 형태의 서술적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서술적 관찰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는 교육시간에 일어난 연구자와 참여 어머니들의 말과 행동, 기타 사건들을 차례대로 서술하였고, 연구자가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매 교육시간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심층면담은 폭 넓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 나가는 면담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질문 목록을 사용하지만 질문하는 방식에 융통성을 갖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질문을 순서대로 해나가되 답변 중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질문을 해 나가는 구조화된 면담에 가까운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이용숙, 1995: 127). 따라서 이 면담방식은 면담자가 많은 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내용을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였다. 연구자와 참여 어머니들의 면담 내용은 현재 어머니가 처한 자녀양육의 상황과 스트레스,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행동, 반응행동으로 인한 결과,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욕구, 자녀에 대한 목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자료의 객관성과 보존을 위해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 어머니들과의 심층면담을 보완하기 위해 서술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서술적 설문 조사는 관찰이나 심층면담을 통해 발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의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다(이용숙, 1995: 133). 연구자는 매 주 참여 어머니들에게 열린 질문으로 구성된 과제를 부과하였고, 이를 통해 어머니들

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중 자료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자료수집과정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김영천(2006)이 제시한 전사, 코딩작업을 거쳐 주제를 생성하였다.

전사는 질적 자료 분석의 첫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수집된 자료들을 컴퓨터 파일에 깨끗하게 정리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작업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분석 단계에 속한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녹화된 동영상 자료, 서술적 관찰 자료, 심층면담자료, 그리고 서술적 설문조사 자료를 매주 전사하여 저장하였다.

코딩은 수집되고 전사된 자료들을 계속 읽으면서 자료 속에 내재된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개념화시키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가지고 세그멘팅(Segmenting) 작업을 실시한 후, 그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반복되는 내용과 의미를 고려해 초기코딩 작업을 실시하여 주제를 정하였다. 이후 이 주제가 객관화된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지 다시 역검토하여,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주제를 최종적으로 생성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석사학위를 소지한 현직 유치원 원장과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동료검증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실제로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불안, 정서적 긴장, 피로움 및 피로감 등이 일상적인 상태로 고착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반응과 연관이 있는데, 최근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의 지각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김경은, 2004; 김진이, 2006; 김혜진, 2005; Lazarus & Folkman, 1984). 즉 부모들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죄책감, 두려움,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기질 요인

부모의 기질 요인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성격이나 기질이 원래 소극적이거나 우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며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최근 부모교육에서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부모 개인의 기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심리검사의 유익은 개인에 대한 내적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은 MBTI 심리검사를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였다.

K 어머니 :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인 것 같아요. 한번은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기로 했는데...가다보니 힘이 들어서 짜증이 났어요. 아이한테도 짜증을 냈고... 그리고 다시는 자전거를 타고오지 않겠다고 말했죠. 함께 결정한 사항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어야 했는데...아이 때문이 아니라 항상 제 기분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되요.

C 어머니 : 거실을 치워야 하는데 아이의 줄넘기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안치우면 버린다고 험박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에게 짜증을 낸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때 서글픔이 밀려와 눈물이 나는 걸 훌쩍이며 감춰야 했어요. 아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고, 또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남모를 두려움이 들었어요. 모든 상황이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소리지르고 같이 우는 내 모습이 수치스러워요.

Y 어머니 : 제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두려워요. 죄책감도 많이 들고요. 근데 아이들이랑 집에 있으면 잘 못해주겠어요. 책 읽어주기도 힘들고...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남편 때문에 가정교육이 안된다고 화를 내요. 근데 사실은 남편이 저한테 아이들을 잘 못키운다고 할까봐 무서워요.

## (2) 부모의 외적 욕구 요인

부모의 외적 욕구 요인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외부 활동과 진로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즉, 자녀의 출생과 함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거나 하고자 했던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취업 등으로 현재의 양육행동이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유발되는 죄책감을 경험하거나(김경은, 2004; 김혜진, 2005; 문혁준, 2004), 자녀를 자신의 인생의 장애물로 간주하면서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반면 취업모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부모와의 갈등을 악화시켰다.

C 어머니 :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에게 장난을 치게 되었어요. ‘○○아, 나중에 엄마 휴가 줄거야?’ ‘응’ ‘그래, 그럼 엄마 여행가도 되겠네?’ ‘나랑 같이?’ ‘아니, 엄마만’ 그 순간 아이가 울었는데, 서러웠는지 슬펐는지 다 토했어요. 괜한 말을 했다고 후회했어요. (예전의 모습을 너무 그리워하지 말아야겠다. 지금의 나와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주 잊어버린다.-과제중에서-)

C 어머니 :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책도 많이 읽어야 하구요. 아이가 혼자 놀아주면 좋겠는데, 꼭 함께 놀기를 원해요. 책도 10권 이상을 읽어줘야 해요. 아이가 엄마가 항상 바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이렇다 보니 저는 항상 그만 좀 하라고 소리지르게 되요.

### (3) 부모의 내적 욕구 요인

부모의 내적 욕구 요인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목표나 기대가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백영숙, 2007; 이유진·박경, 2005). 또한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자녀의 특성보다는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자녀를 맞추려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부모가 교사였거나 교사인 경우 자녀에게 완벽함을 많이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자녀의 하찮은 실수에도 스트레스를 느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K 어머니 : 저는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주지 않아 짜증이 많이 나요. 편식할 때,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어길 때 너무 화가 나요. 그럴 때 저는 아이를 엄하게 다스리고 체벌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 힘으로 아이를 제압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과 무력감을 느껴요.

C 어머니 : 아이가 넷이에요. 정말 일이 많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과 남편에게 자녀를 잘 키웠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 (4) 부모의 건강 요인

부모의 건강 및 신체적 피로감도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이랑, 2003). 이러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짜증을 내는 횟수가 많았으며, 또한 자녀양육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K 어머니 : 아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녁이 되어 피곤이 몰려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거나 무엇인가 요구할 경우 저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다 폭발하곤 해요. 아이에게 화를 낼 기운도 없을 때에는 방관하게 될 때가 많아요.

L 어머니 : 저는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파요. 아이들도 소화기가 약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데, 아이들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 먹으려고 해요. 사주지 않으면 계속 울어대며 조르고, 또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도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때면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부어요. 아이들만 보면 순식간에 화가 치밀어올라요. 늘 몸과 마음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어요.

## 2. 부모의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의 대인관계 특성은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즉 가정, 교회, 직장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겪는 갈등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 (1) 부부간 갈등 요인

부부간 갈등 요인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 어머니가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와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에 나타났다. 직장 일로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머니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녀양육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에서의 남편의 지지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그만큼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양정화, 2002; 원명선, 2006; 윤혜미, 2000).

C 어머니 : 저는 행동이 많이 느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못해요. 항상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근데 남편은 퇴근하면 자기도 피곤하다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집에 오면 컴퓨터 앞에 앉거나 잠만 자요. 물론 남편도 힘들겠죠. 하지만 저도 힘들다보니 남편에게 소리지르고 또 아이들한테는 신경질을 부려요. 이런 삶이 매일 반복되요. 정말 우울하고 힘들어요.

또한, 부부간의 갈등도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민하영, 2005).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부부간의 대화가 없었으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어머니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자녀에게 표출하기도 하고, 자녀의 특정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M 어머니 : 남편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집에 오면 짜증을 많이 내고 큰 소리만 쳐요. 특히 아들에게는 거친 말(새끼야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도 자주 따라해요. 또 아토피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퇴근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자만을 사와요. 아이가 3살 때 아빠를 한강에 빠뜨려서 뚜껑으로 닫아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점점 과격해져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C 어머니 : 남편은 집에서 어떤 일도 도와주지 않아요. 가끔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에게 책임추궁을 해요. 가정의 일은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짜증이 아이들한테 가요. 아이들한테 못할 소리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서워해요. 교회에서도 다른 어른들을 대할 때 직접 말을 못하고 저에게 귓속말로 해서 제가 말하게끔 해요. 저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애들의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요.

## (2) 고부간 갈등 요인

고부간의 갈등이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든 혹은 살지 않든 고부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했으며, 이는 자녀양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고부간 자녀양육의 방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머니들은 시어머니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M 어머니 : 하루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된다고 하니 '그럼 할머니한테 사달라면 되지!'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엄마랑 같이 자자고 하면 저희 아이는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 이유는 할머니랑 자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을까봐 그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싫어요. 시어머니가 아이가 밥 먹을 때 먹여주지 않으면 좋겠고, 아이들이랑 있을 때에는 TV보는 것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요.

C 어머니 : 시댁은 저에게 짐같은 존재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시댁으로 인해 너무 괴로워요.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만 해도 극도의 히스테리를 느껴요.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엄마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한 후에 TV 볼륨을 크게 높여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해요. 또 남편에게 하소연할 때도 많은데, 잘 들어주지 않아 언성을 높이고 울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아이도 옆에서 같이 울어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늘 징징거리고 이유없이 자주 울어요. 심지어 토하기까지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요.

### 3. 자녀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 요인

자녀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기질과 관련이 있다(권연희, 2010; 김송이·최혜영, 2007). 기질은 인성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성의 한 면인 개인의 정서적 반응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첫째, 적극적이며 경쟁심이 강한 기질이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무엇이든 하려고 하며, 외부의 간섭에 대해 잘 참지 못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다.

K 어머니 : 우리 아이는 일등을 하려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제 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더 한다는 것을 느끼면 졸려도 울면서 더 하려고 해요. 현관문도 일등으로 나서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일등으로 타야하고,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도 일등으로 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울고 빠져요. 쇼핑을 가도 자신의 것을 먼저 사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투정하고 투덜거려요. 옷도 자신이 원하는 분홍색 스커트와 스타킹만 신으려고 해요. 아무리 설득해도 다른 옷은 안 입으려고 해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도 엄마 탓을 하면서 울어요.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요.

C 어머니 : 아이가 집요하게 떼를 써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 떼를 쓰는 편이라 시끄럽고 지겨워서 들어주는 편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과격한 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화가 나서 때릴 때도 많아요. 요즘에는 여섯 살된 아이한테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라고 소리도 질러요. 이제는 아이를 통제하고 싶지도 않아요.

둘째,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기질이다. 일반적으로 이 유형의 아이들은 까다롭지 않고 조용하게 보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변화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하고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수동적인 반감 심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K 어머니 : 우리 아이는 많이 울어요. 왜 우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는 좋게 일어났는데, 아침밥 먹이려니 누워서 울고만 있었어요. 말로 하라고 했

더니 말도 안하고, 밥 먹자고 해도 안 듣고, 물만 마시라고 해도 마시지 않더라구요. 결국 화나서 한대 때려 유치원을 보냈어요.

A 어머니 : 우리 아이는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에요. 물어보면 한번에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고 싶어하는 일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또 사소한 일에도 잘 빠치고 울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친구가 인사하면 모른척하고 그냥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셋째, 성취욕구가 강하고 예민한 기질이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종종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자존심이 몹시 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

L 어머니 : 아이가 고집이 세고 예민한 편이에요. 성격도 급하구요. 요즘에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대요.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수준이 높다고 해요. 저희 부부는 다 바빠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든데, 저희 아이의 행동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번에는 반항을 하는건지... 껌을 못씹게 했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건물 아래에서 혼자 서있기도 했어요. 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화가 나요.

#### 4. 자녀의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대인관계 특성은 자녀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로 또래나 형제와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자녀의 기질보다는 자녀의 외적 환경 요소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이다(김승희, 2005; 김지홍, 2004; 장영화, 2000). 이 요인들은 일차적으로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차적으로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자녀의 또래 관계 요인

자녀의 또래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유치원 혹은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부모에게까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부모들은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C 어머니 : 집 골목에 또래 친구 7명 정도가 있어요.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함께 잘 놀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집에서 친구들이 무섭다고 해요. 누구 누구가 힘이 세다고 하면서 자기를 때릴지도 모른다고 무서워해요. 또 가끔 함께 놀 때 보면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놀 때가 많아요.

## (2) 자녀의 형제 관계 요인

유아의 형제관계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는데, 대부분 첫째 자녀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는 책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째 자녀들도 동생들로 인해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K 어머니 : 8살 누나랑 많이 싸워요. 왜 싸웠는지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이 잘못된 쪽이 사과하도록 하는데, 주로 동생이 많이 잘못하죠. 근데 말뿐이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더 자극적인 벌을 주어야겠다는 감정과 분노가 느껴져요.

C 어머니 : 7살 여자아이인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1주일에 5번 정도 밤에 자다가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큰 애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항상 얘기하는 편이에요. 한번은 아이가 자다가 '엄마 잘못했어요.'라고 잠꼬대를 했어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큰애가 알뜰게 느껴져요.

L 어머니 : 큰애와 작은애가 많이 싸워요. 큰애가 둘째한테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매일 엄마한테 사랑하고 안아달라고 해요. 요즘에는 동생을 살짝살짝 때려요. 또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자고 때를 쓰기도 하고, 사촌 집에 가면 집에 안오려고 해요.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질적 면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들을 세 개의 소그룹으로 구성한 후 기독교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각각 8주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술적 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과제 형태의 서술적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전사와 코딩작업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 1. 논의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이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실제적인 스트레스원보다는 그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부모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질 요인과 욕구 요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MBTI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기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내적 통찰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소와 함께 부모 자신의 부모인 원부모와의 관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삶의 주요한 사건들을 고려해봄으로써 부모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이에 따른 행동양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자신의 자녀양육행동에 원부모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환경과 사건에 대한 어머니들의 지각과 해석이 왜곡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욕구 요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욕구의 좌절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보내는 자신의 삶에 대해 무의미함과 함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혼란과 피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둘째, 부모의 대인관계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둘러싼 인적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혹은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가정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로 누구나 인식하는 보편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혼자 괴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성들의 지위가 높

아지고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들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들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고부간의 갈등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개인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까다로운 성격이나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원이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는 적극적이며 경쟁심이 강한 기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기질, 그리고 성취욕구가 강하고 예민한 기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녀의 기질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성경적인 자녀양육 방법들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임을 지적하면서 실제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기독교 부모교육이 주로 자녀의 신앙교육에만 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녀양육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적용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권유진, 2010: 100).

넷째, 어머니들은 자녀의 주변 환경에서 비롯되는 갈등에도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또래나 형제와의 갈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자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2. 결론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부모교육에서의 내용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독교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이 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앞으로의 기독교 부모교육은 부모들의 실제적인 자녀양육의 삶과 연관되어질 필요가 있다. 부모, 자녀, 그리고 교회 및 기독교 교육기관의 영역에서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 영역에서의 제언을 하면, 첫째, 부모 자신의 내적 이해와 치유에 관한 부분이 기독교 부모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부모교육에서도 개인이 스트레스 자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지를 다루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부모 자신의 이해와 치유에 대한 내용을 부모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권유진, 2010: 100; 김정선, 2005: 77). 둘째, 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들의 삶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정체감을 배우고 부모로서의 그들의 사명을 의식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 부모교육의 내용들이 기독교인 부모들의 실제 자녀양육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적용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장금석(2011)은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태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신앙에 따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교회에 기도하려는 가지만, 실제적인 자녀양육의 방법이나 문제해결 방법들은 심리학에서 찾는데, 이에 대해 내러모어(Narramore, 1982: 9)는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이 삶의 기초적 측면인 부모역할하기(parenting)라는 과제를 일반 교육과 심리학의 분야에 떠맡겨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기독교 부모교육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느끼는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신앙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자녀양육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정(2009)은 기독교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양육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감정 및 감정의 근원에 있는 부모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목표를 성경적인 목표로 변화시킴으로써 자녀양육 상황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인 부모들의 내면적 성숙을 이루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녀 영역에서의 제언을 하면, 첫째, 성경적인 유아의 심성 발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심리학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교육 전문가들도 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부모교육은 이에서 더 나아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아의 발달을 부모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나의 보편적 원리가 아닌 대상 자녀에 적합한 구체적인 자녀양육방법을 부모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녀양육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이 기독교 부모교육의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 및 형제 관계에 대한 정보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아기에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정서적 성장도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이때 자녀의 대인 관계능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으로 자녀의 또래 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부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많은 어머니들이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고백하였는데, 현대 사회의 가정해체와 가정파괴 현상을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은 부모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독교 부모교육은 이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데, 만약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형제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이는 공동체 혹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부모교육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녀를 통해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모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 및 기독교 교육기관 영역에서의 제언을 하면 첫째, 심리학적 도구가 아닌 성경적 관점에 근거한 기질 검사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개인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 교육기관과 교회에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자녀양육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역할의 의미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 및 교회 내의 전문적인 사역자나 인적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예

비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준비와 함께 달라진 남편의 역할이나 고부관계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일반 부모교육에서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인 지원망을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을 요구하는 것처럼, 교회와 기독교 교육기관에서도 부모와 자녀를 교육하고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 부모교육의 내용 변화와 관련하여 부모, 자녀, 그리고 교회 및 기독교 교육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제언을 요약하면 <표3>과 같다.

<표3>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위한 제언: 내용의 변화

범주	구체적 제언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자신의 내적 이해와 치유</li> <li>• 부모의 현재 삶에 대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평가</li> <li>• 기독교인 부모로서의 정체감 및 사명감에 대한 내용</li> <li>• 자녀양육에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체적 사역</li> <li>• 부부 및 고부간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li> </ul>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경적 관점에서의 유아발달연구</li> <li>•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경적 자녀양육방식</li> <li>• 또래 및 형제 관계에 대한 정보</li> </ul>
교회 및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경적 관점에 근거한 기질 검사 도구 개발</li> <li>•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li> <li>• 기독교 부모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역자 및 인적 자원 양성</li> <li>•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li> </ul>

둘째, 기독교 부모교육에서의 형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개인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들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이러한 고립화 현상은 부모들에게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따라서 부모들의 삶과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며 나눌 수 있는 소집단 형식의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켈리는 부모교육 전문가들이 부모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들이 함께 그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형태로 소집단 토의(small discussion group)를 제안한 바 있다(Kelly, 1981: 28). 또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기독교

교인 부모들의 마음을 다룰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상담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트립은 기독교인의 자녀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화에 기반한 상담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Tripp, 1990: 108). 슈니트거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방치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담적인 교육만이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를 상담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Schnittger, 1995: 44).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들 역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기 보다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실제들을 전문가 및 다른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담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숙영, 2006: 56).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반 부모교육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부모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통합하는 다학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교육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이나 자녀의 발달이해와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간 그리고 부모와 교육기관 및 교회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부모 자신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과 갈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상담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의 변화에 있어서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언을 요약하면 <표4>와 같다.

〈표4〉 기독교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위한 제언: 형식의 변화

구체적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기독교 부모교육 실시</li> <li>• 소집단 형식</li> <li>• 상담의 방법</li> </ul>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은영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 권연희 (2010). “아동의 기질,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 행동의 매개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57-280.
- 권유진 (2010). “기독교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통해 본 부모역할기에 관한 연구: 아름다운 부모학교, 성경적 부모교실, 마더와이즈, 유니게 부모학교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경남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인터넷 쇼핑 중독 성향과의 관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정은 (2004). “취업모의 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미숙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김승이·최혜영 (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지』, 45(8). 1-11.
- 김승희 (2005).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영천 (2006). 『질적연구』. 서울: 문음사.
- 김정선 (2005). “교회학교 유치부 부모교육 활용을 위한 기독교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연구-부모학교, 아버지학교, 마더와이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지홍 (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김진이 (2006). “유아의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춘자 (2009). “맞벌이가정 어머니의 생태학적 변인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현희 (2008).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가 육아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혜진 (2005).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노진형 (2005). “부모교육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적용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1-20.
- 문혁준 (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민숙영 (2006). “유치원 부모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민하영 (2005).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27-34.
- 방한별 (2007). “기혼남성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버지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배수진 (2009).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백미영 (1995). “유치원 부모들의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에 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백영숙 (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서민교 (2007). “사회적 지지가 기혼여군의 자녀양육 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정화 (2002). “남편의 협력과 어머니의 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원명선 (200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윤미향 (2006). “취업모의 취학 전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윤혜미 (2000). “부모교육과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복지학』, 43, 246-269.
- 이 랑 (2003). “자녀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숙미 (2009).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이용숙 (1995). “교육과정 및 수업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 『교육논총』, 11, 59-143.
- 이유진·박경 (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5(2), 39-57.
- 이정미 (2005).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영 (2010). “다자녀가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동대문구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화정 (2001).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임미애 (2007).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맞벌이 가족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장금석 (2011).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태도 비교: 서울특별시 거주 초등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장영화 (2000). “유아스트레스 대처행동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정안나 (2007).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정희정 (2009).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차삼숙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채경선 (2006). “기독교 부모의 자기성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승애 (2006).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최윤경 (2011). “영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교육신념과의 관계: 충청남도 H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혜리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허순금 (2006).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Balswick, J. and J. Balswick (1989). “A Maturity-Empowering Model of Christian Parenting.” *Journal of Theological Psychology* 17. 36-43.
- Choi, J. N. (2007). *Train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s Role for Christian education of children*. D. Min. Project. Oral Roberts University.
- Crnic, K. A. and M. T. Greenberg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Godissart, J. A. (2008). *Equipping Parents to Nurture their Children in Christian Discipleship: A Family Discipleship Program for the McConnellsburg United Methodist Charge*. D. Min. Projec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 Heinicke, C., Carlin, E. and K. Given (1984). “Parent and Mother-Infant Groups: Building a Support System.” *Young Children* 39(3). 21-27.
- Hsu, D. (2008). *Adopting a Biblical Parenting Model by Parent of Asian-american Teenagers*. D. Ed. Min. Project.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Kagan, S. L., Neville, P. and J. Rustici (1993). *Family Education and Training: from Research to Practice: Implementation Plan*. Center on Families, Communities, Schools & Children's Learning, 14. New Haven: Yale University.
- Kelly, F. J. (1981). “Guiding Group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37(1). 28-32.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 역 (200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광문화사.
- Narramore, B. (1982). *Parenting with Love and Limits*. Grand Rapids, Michigan: The Zondervan Corporation.
- Powell, D. R. (1986).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Young Children* 41(3). 47-53.

- Schnittger, D. (1995). *Equipping Parents for Rearing Adolescents*. D. Min. Projec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Thomson, D. R. (2009). *Growing in favor with God: Young Children's Spiritual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Christian Education*. Ed. D. Project. University of North Texas.
- Tripp, T. A. (1990). *Parenting Shepherding the Child's Heart*. D. Min. Projec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 ABSTRACT

### A Study on Directions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through the Child Care Stress of Christian Mothers having Children in Early Childhood

Hee Jung Chung(Lecturer of Chongshin University)

The study qualitatively examines the child care stress of the Christian mothers while mothers rear their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based on this, it proposes directions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in the future in South Korea. To investigate this, the research qualitatively analyzes various data collected from Christian parent education targeting for mother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us, the child care stress of the mothers in the study shows the stress from the parents themselv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 stress from their children and the children's relationship with others.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directions of Christian parent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change of the content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The future Christian parent education should include implication of this study, and it should help child care represent an expression of faith in the real life. Thus, Christian parent education should present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daily stress and their faith is and how the help from the triune God is concretely represented in the child care. The second is the change of the form of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The small group parent education, which can deal with the mind of the parents, is effectively represented; Christian parent education should encourage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parents, parent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arents and churches in terms of educational perspective on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s development, and it should discuss in depth the belief and conflict about child rearing of parents themselves.

**Key Words:** Christian parent education, child rearing, child care st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 education and counseling